

보도일시 (인터넷) 2024. 9. 9.(월) 11:00,
(지면) 9. 10.(화) 조간

배포 2024. 9. 9.(월) 06:00

해양디지털 기술의 현주소, 아태 국제 콘퍼런스에서 확인하다

- 해양수산부 주최, 제8회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부산에서 개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제8회 아시아 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이하 아·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7년 제1회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태 콘퍼런스는 아·태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 전문가들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 아·태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 기술을 논하다, 미래를 열다 (Opening The Future with Maritime Digitalization)"를 주제로 해양디지털 관련 산·학·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아·태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부사무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 체결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태 콘퍼런스가 세계 해양디지털 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지금처럼 역할을 지속 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팀 장	김인수 (044-200-6141)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담당자	서기관	이영섭 (044-200-6148)

참고 1

제8회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 컨퍼런스 개요

□ 기본 방향

- 해양디지털 산업의 국제적 기술 개발 동향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국내외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등 기회의 場 마련

* 세계 3대(아태·유럽·북미) 컨퍼런스 중 하나로 '17년부터 매년 개최

☞ (주제) 「해양디지털 기술을 ^{Opening the Future with Maritime Digitalization} 논하다, 미래를 열다」

□ 행사 개요

- (기간/장소) 9. 10.(화) ~ 11.(수) / 부산 시그니엘 호텔*

* 한국해사주간 주 행사장인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도보 약 10분거리

- (주최) 해양수산부, 덴마크해사청(DMA),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공동
- (구성) 개회식(국장님), 전문가세션(5개), 수출상담회(해외20社, 국내50社)

일자	시간	주요 구성
9.10 (화)	11:00~17:00	• (수출상담회) 해양디지털 국내외 기업 수출상담회
	14:00~14:30	• (개회식) 개회사(해사안전국장), 축사* , 기념 촬영 * IMO사무총장, DMA 해사청장, IALA 부사무총장
	14:30~14:50	• (MOU 체결식) 해양산업 수출 및 기술협력 MOU 체결
	14:50~17:55	• (세션 1~3) 해양디지털 국제 기술개발 동향 등
	18:00~20:00	• (환영 만찬) 리셉션, 만찬사·마무리 말씀(해사안전국장)
9.11 (수)	10:00~14:50	• (세션 4~5) 차세대 해양디지털 기술의 산업화 등
	14:50~15:30	• (폐회식) 성과홍보, 폐회사(첨단팀장), 기념 촬영

- (참석자) 해사안전국장, 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필리핀 해사청장, IALA 부사무총장,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

